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청년 체감실업자 179.2만명, 체감실업률 34.2%에 달해

목 차

■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청년 체감실업자 179.2만명, 체감실업률 34.2%에 달해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통계청의 청년 고용보조지표 현황	3
3. 청년 고용보조지표 개선 방안	7
4. 시사점	16

Executive Summary

□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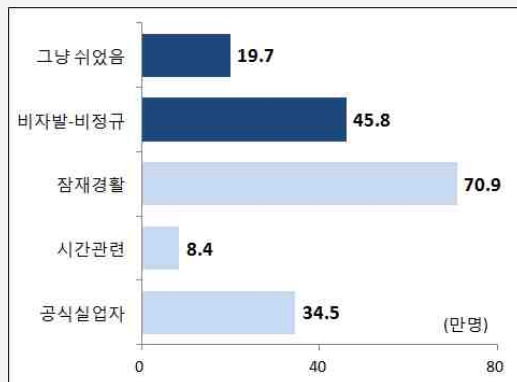
■ 개요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공식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이하 잠재경황)'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추가로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고려하여 고용보조지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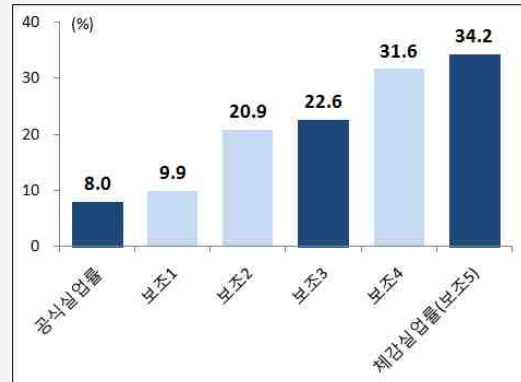
■ 통계청의 청년 고용보조지표 현황

2015년 8월 기준 청년층 공식실업자는 34.5만명이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8.4만명)와 잠재경황(70.9만명)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3.8만명에 달한다. 청년 공식실업률은 8.0%인 반면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2.6%에 이르며, 특히 남성(23.8%)과 20~24세(25.8%), 대학재학생(27.4%)에서 높게 나타났다.

< 청년 체감실업자 >



< 청년 체감실업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해 산출.

■ 청년 고용보조지표 개선 방안

(고용보조지표 확장)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 중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만을 포함시키지만,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임금, 공적연금, 고용보험, 교육훈련 등 근로여건이 자발적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경황만을 포함시키지만,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쉴 경우 당사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체감실업) 통계청의 공식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황에다가 비자발적 비정규직(45.8만명), 그냥 쉬고 있는 청년(19.7만명)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2만명에 달한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르며, 특히 남성(37.1%)과 20~24세(41.0%), 대학재학생(49.1%)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년 중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공식실업자)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4세와 대학재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취업에 대한 상이 정립되지 않아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합한 '불완전고용'도 남성과 20~24세, 대학재학생에서 더 많다.

< 확장된 고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 현황 (2015년 8월 기준) >

(단위 : 만 명, %)

구분	공식 실업자 (a)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b)	잠재 경황 (c)	비자발적 비정규직 (d)	그냥 쉬었음 (e)	고용보 조지표 3 인원 (a~c)	체감 실업자 (a~e)	공식 실업률	고용 보조지 표 3	체감 실업률 (보조5)
청년 전체	34.5	8.4	70.9	45.8	19.7	113.8	179.2	8.0	22.6	34.2
남성	19.4	3.4	36.2	24.3	13.3	58.9	96.5	9.2	23.8	37.1
여성	15.1	5.0	34.7	21.5	6.4	54.9	82.7	6.8	21.3	31.4
20~24세	12.8	3.0	33.6	22.8	10.7	49.5	82.9	8.1	25.8	41.0
25~29세	18.6	4.1	32.5	16.3	7.2	55.2	78.7	7.6	19.9	27.6
고교졸업생	7.7	1.1	11.3	9.8	5.1	20.1	35.0	9.8	22.4	36.8
대학재학생	6.9	2.6	21.1	20.6	7.3	30.6	58.4	7.6	27.4	49.1
대학졸업생	19.7	4.5	37.8	14.8	7.3	61.9	84.0	7.5	20.7	27.5

■ 시사점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지표를 확장하고 체감실업자의 특성에 맞춰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첫째**, 공식실업자 및 잠재경황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주로 분석했는데, 부모 일손을 돕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 청년과 육아·가사를 주로 하는 청년 중에서도 사실상 실업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 개요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 발표¹⁾

- 용어 및 개념

- 용어 : ILO의 공식명칭은 ‘노동저활용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이고 한국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로 명명
- 개념 : 고용보조지표란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

- 구성 및 산출방식 : 고용보조지표는 통계청의 공식실업자는 물론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이하 잠재경황)를 포함

- 실업자(이하 공식실업자) :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 ILO 및 한국 통계청이 산출하는 공식적인 실업자임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추가적인 일을 원하고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36시간)보다 적은 사람

< 고용보조지표 관련 용어 >

ILO 제시 영문명	한국 통계청 명칭
노동저활용지표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고용보조지표
LU2	고용보조지표1 (a 고려)
LU3	고용보조지표2 (b, c 고려)
LU4	고용보조지표3 (a, b, c 고려)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Time Related Underemployed)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a)
확장된 노동력 (Extended Labor Force)	확장경제활동인구(b)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	잠재경제활동인구(c)
취업불가능구직자 (Unavailable Job Seeker)	잠재취업가능자
비구직·취업희망·취업가능자 (Available Potential Job Seeker)	잠재구직자

자료 : 국가통계위원회(2014.11.5).

1) 국가통계위원회(2014.11.5) 의안번호 제2014-02호, “고용보조지표 개발” 등에서 인용.

- 잠재경제활동인구(이하 잠재경황)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잠재구직자) 혹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능성이 없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공식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황을 합하여 '고용보조지표3 인원'으로 명명
 - 통계청은 공식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황을 포함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본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편의를 위해 '고용보조지표3 인원'으로 칭할 뿐 통계청과 다른 새로운 정의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님
- 한편 실업률(이하 공식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1~3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실업률(이하 공식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 + \text{실업자}}$

· 고용보조지표1 = $\frac{\text{실업자}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text{취업자} + \text{실업자}}$

· 고용보조지표2 =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황}}{\text{취업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황}}$

· 고용보조지표3 = $\frac{\text{실업자}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잠재경황}}{\text{취업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황}}$

○ (연구목적) 15~29세 청년층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지표의 확장 가능성 모색

-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켜 정책대상으로 삼는 방안 모색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청년 대부분이 추가취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 또한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체감 실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모색

2. 통계청의 청년 고용보조지표 현황

- (전체) 2015년 공식실업과 고용보조지표3의 격차가 약 2~3배에 달함
 - 2015년 전체 : 공식실업자 및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각각 39.7만명, 108.9만 명이고, 공식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9.2%, 22.0%임
 - 2015년 공식실업자는 39.7만명이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9만명) 및 잠재경향(62.3만명)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08.9만명임
 -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9.2%, 고용보조지표1은 10.8%, 고용보조지표2는 20.6%, 고용보조지표3은 22.0%임
 - 2015년 8월2) : 공식실업자 및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각각 34.5만명, 113.8만명이고, 공식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8.0%, 22.6%임
 - 2015년 8월 공식실업자는 34.5만명이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8.4만명) 및 잠재경향(70.9만명)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3.8만명임
 -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8.0%, 고용보조지표1은 9.9%, 고용보조지표2는 20.9%, 고용보조지표3은 22.6%임
 - 8월에는 기업의 신규채용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공식실업자가 줄어드는 대신 잠재경향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증가
 -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례 증가. 구체적인 구직활동 포기로 공식실업자가 잠재경향으로 이동
 -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 형태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 현황 (2015년) >

(단위 :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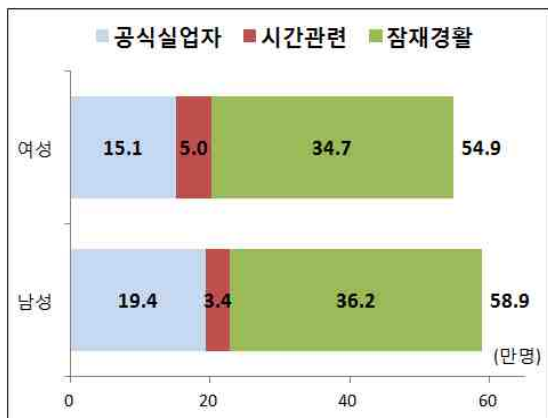
구분	취업자 (a)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b)	공식 실업자 (c)	비경제 활동인구	잠재경향 (d)	고용보조 지표3 인원 (b+c+d)	공식 실업률	고용 보조 지표 1	고용 보조 지표 2	고용 보조 지표 3
2015년	393.8	6.9	39.7	515.2	62.3	108.9	9.2	10.8	20.6	22.0
8월	399.0	8.4	34.5	515.4	70.9	113.8	8.0	9.9	20.9	22.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를 활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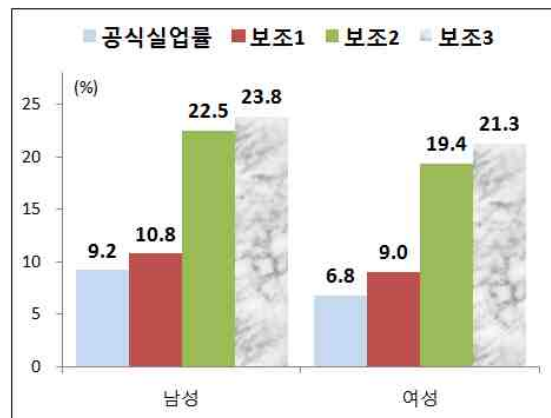
2) 본 보고서는 3장 ‘청년 고용보조지표 개선방안’에서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체감실업자로 포함하는데,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2장과 3장의 연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8월을 추가 분석한 것임.

- (성별) 청년 중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보조지표3이 높으며, 남성은 공식실업자와 체감경황이, 여성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 2015년 8월 기준 청년 남성과 여성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각각 58.9만명, 54.9만명이고,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23.8%, 21.3%임
 - 청년 남성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58.9만명. 공식실업자 19.4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3.4만명, 잠재경황 36.2만명임.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9.2%, 고용보조지표3은 23.8%임
 - 청년 여성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54.9만명. 공식실업자 15.1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5.0만명, 잠재경황 34.7만명임.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6.8%, 고용보조지표3은 21.3%임
- 청년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 공식실업자 및 잠재경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청년 남성이 여성보다 공식실업자 및 잠재경황이 많다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의미
 - 즉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공식실업자)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성별 청년 고용보조지표3 인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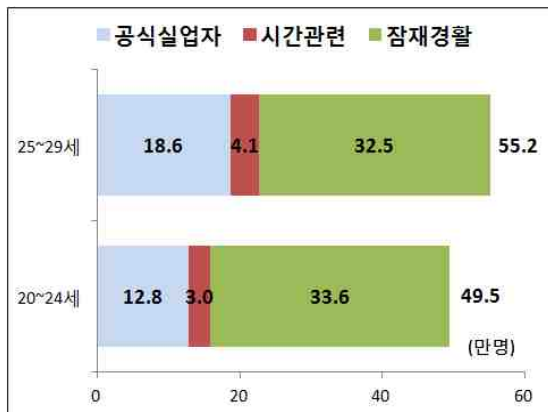
< 성별 청년 고용보조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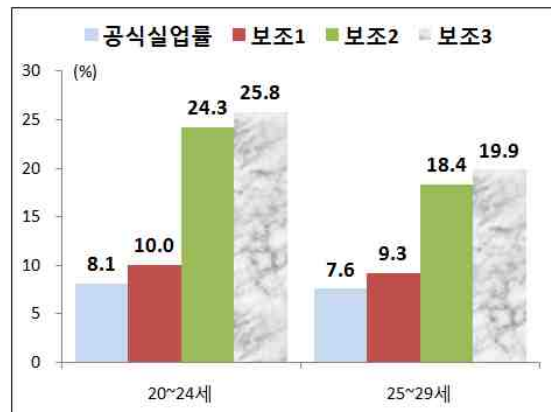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시간관련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잠재경황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뜻함.

- (연령별) 20~24세가 25~29세보다 고용보조지표3이 높으며, 20~24세에서 특히 잠재경황이 매우 많음
- 2015년 8월 기준 20~24세와 25~29세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각각 49.5만명, 55.2만명이고,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25.8%, 19.9%임³⁾
 - 20~24세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49.5만명. 공식실업자 12.8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3.0만명, 잠재경황 33.6만명임.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8.1%, 고용보조지표3은 25.8%임
 - 25~29세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55.2만명. 공식실업자 18.6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4.1만명, 잠재경황 32.5만명임.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7.6%, 고용보조지표3은 19.9%임
 - 15~19세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9.1만명. 공식실업자 3.1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1.3만명, 잠재경황 4.8만명임.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10.1%, 고용보조지표3은 26.1%임
- 20~24세는 25~29세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업준비를 하기 때문에 잠재경황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됨
 - 20~24세는 25~29세에 비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공식실업자)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 청년 고용보조지표3 인원 >



< 연령별 청년 고용보조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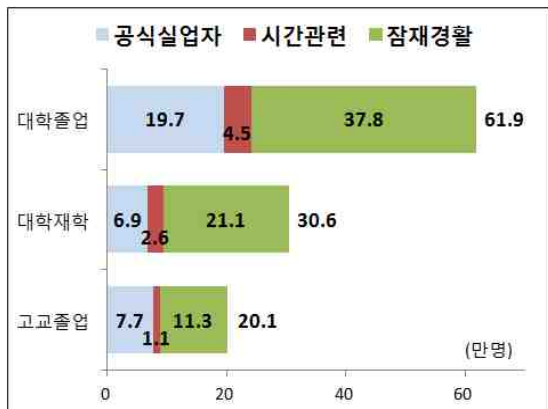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시간관련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잠재경황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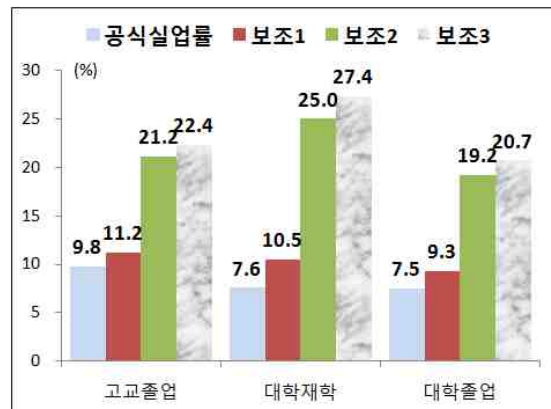
3) 15~19세는 고용보조지표3 인원이 적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

- (학력별) 청년 중 대학재학생이 대학졸업생보다 고용보조지표3이 높으며, 대학재학생은 잠재경황이 상대적으로 많음
- 2015년 8월 기준 청년 중 고교졸업생과 대학재학생, 대학졸업생의 고용보조지표 인원은 각각 20.1만명, 30.6만명, 61.9만명이고,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22.4%, 27.4%, 20.7%임⁴⁾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고교졸업생) 중에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20.1만명. 공식실업자 7.7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1.1만명, 잠재경황 11.3만명임.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9.8%, 고용보조지표3은 22.4%임
 - 대학재학생 중에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30.6만명. 공식실업자 6.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2.6만명, 잠재경황 21.1만명임.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7.6%, 고용보조지표3은 27.4%임
 - 대학졸업생 중에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61.9만명. 공식실업자 19.7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4.5만명, 잠재경황 37.8만명임.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7.5%, 고용보조지표3은 20.7%임
-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업준비를 하기 때문에 잠재경황이 많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교졸업생은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식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에 비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공식실업자)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음
 - 한편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교졸업생은 구체적인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공식실업자가 많고 공식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학력별 청년 고용보조지표3 인원 >



< 학력별 청년 고용보조지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시간관련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잠재경황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뜻함.

4) 고교재학생 중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만명에 불과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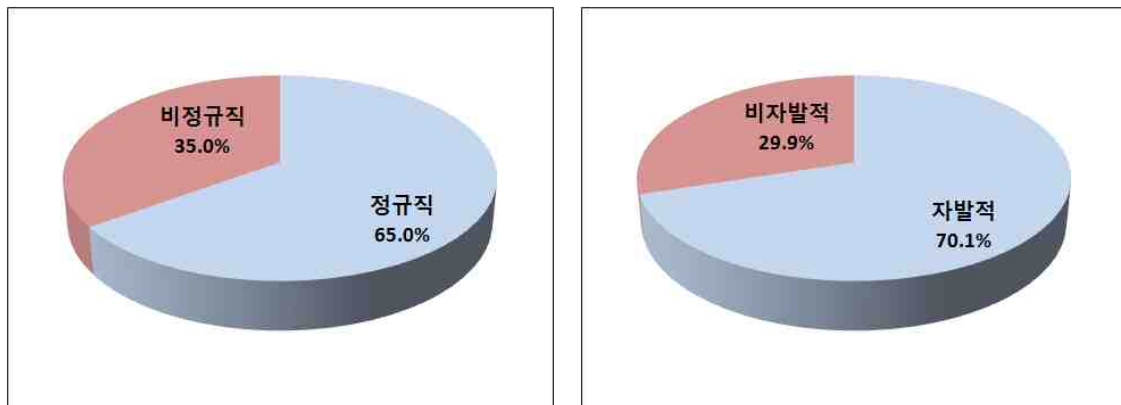
3. 청년 고용보조지표 개선 방안

(1)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확장 필요성

○ (비자발적 비정규직)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 중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만을 포함시키지만,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됨

-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 취업 청년의 상당수는 하위 일자리며, 특히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당
 - 2015년 8월 청년 임금근로자 374.0만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35.0%(130.9만명)이고, 비자발적으로 근로형태(정규직 혹은 비정규직)를 선택한 청년의 비중은 29.9%(111.9만명)임
 - 2015년 8월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청년의 비중은 13.4%(50.2만명)임

< 청년층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중 > < 청년층의 자발적-비자발적 근로형태 선택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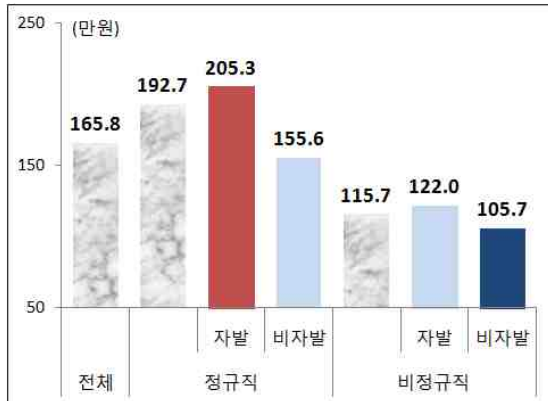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2015년 8월 청년 임금근로자(374.0만명) 대비 비중임.

-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은 자발적 정규직 청년보다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추가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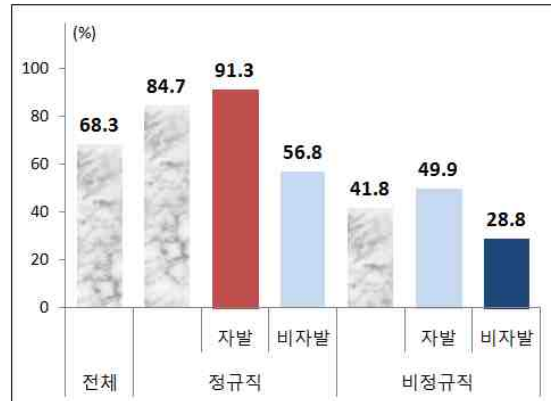
5) “지난 주의 일자리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로 일하게 된 것이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란 질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라고 응답한 비율.

- 2015년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105.7만원으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205.3만원과 상당한 격차
- 2015년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8.8%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91.3%와 상당한 격차

< 청년의 특성별 임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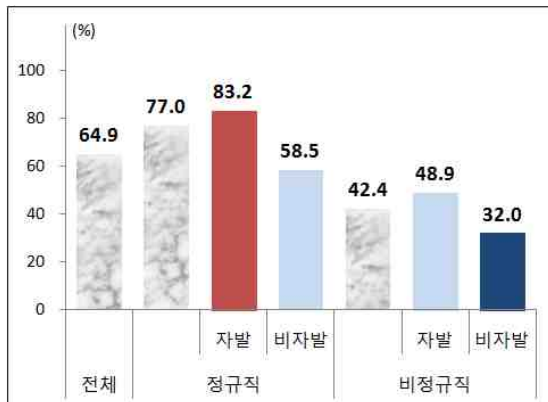
< 청년의 특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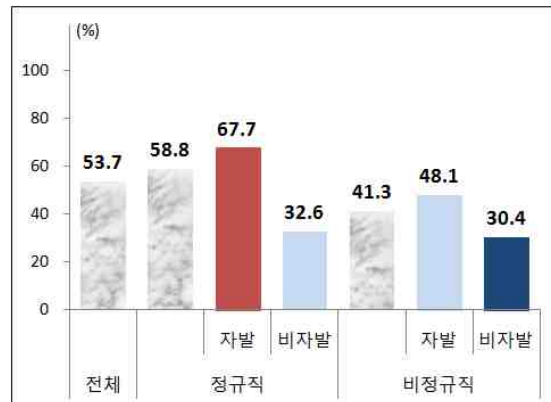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2015년 8월 기준.

- 2015년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2.0%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83.2%와 상당한 격차
- 2015년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30.4%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67.7%와 상당한 격차
- 이는 교육훈련을 통한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적음을 암시

< 청년의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률 >



< 청년의 특성별 교육훈련 경험비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2015년 8월 기준.

- (그냥 쉬었음)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 경제 활동인구'만을 포함시키지만,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체감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청년고용대책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경우 당사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음
 -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그냥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됨
 -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하는 것을 염려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⁶⁾
- 청년 고용의 특성상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노동저활용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성
 - ILO가 사용하는 본 명칭은 '노동저활용지표'며, 우리나라 통계청은 이를 고용보조지표로 명명하고 있음
 - 청년 고용의 특성상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뿐만 아니라 그냥 쉬고 있어 '미활용'되고 있는 인력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공식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 국제적으로 잠재경황 등을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경기변동과 상관관계가 높고 공식실업자와 공행성이 강하기 때문
 -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경기가 악화될 때 증가하고 경기가 개선될 때 감소하는 등 공식실업자와 강한 공행성을 띠
 - 따라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개인적 성향에 따른 '직장 기피자'로 치부할 수 없으며, 경기 악화로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6) 주로 '니트족'으로 정의하고 대책을 마련.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모두 않고 있는 청년을 뜻함.

○ (용어 및 산출방식) 체감실업자 및 체감실업률 정의는 아래와 같음

- **비자발적 비정규직** : 청년 취업자 중에서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에 포함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
 - 비자발적 청년 : “지난 주의 일자리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로 일하게 된 것이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란 질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응답한 청년
 - 비정규직 청년 : 한시적 근로자⁷⁾나 시간제 근로자⁸⁾, 혹은 비전형근로자⁹⁾

- **그냥 쉬었음** : 청년 비경황 중에서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잠재경황)에 포함되지 않고, 학업이나 취업, 취업준비, 육아·가사 등의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¹⁰⁾
 - 잠재경황이 아닌 비경황 청년 중에서 “지난 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란 질문에 “① 육아 ② 가사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④입시학원 통학 ⑤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⑥ 취업준비 ⑦ 진학준비 ⑧ 연로 ⑨ 심신장애 ⑩ 군입대 대기 ⑪ 쉬었음 ⑫ 기타” 중에서 “⑪ 쉬었음”으로 응답한 사람

- **체감실업자** : 1장에서 정의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공식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황)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포함

- **고용보조지표4** : 고용보조지표3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지표

$$= \frac{\text{실업자}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잠재경황} + \text{비자발적비정규직}}{\text{취업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황}}$$

-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5)** : 고용보조지표4에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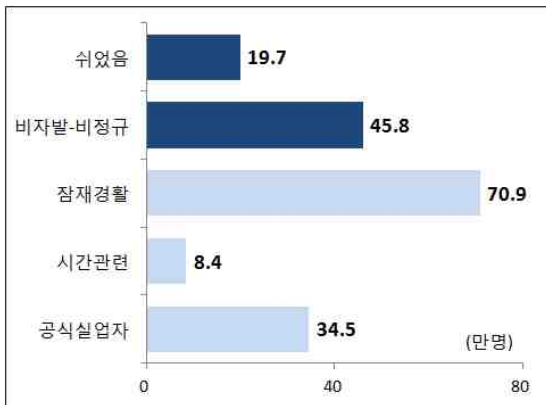
$$= \frac{\text{실업자}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잠재경황} + \text{비자발적비정규직} + \text{그냥쉬었음}}{\text{취업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황} + \text{그냥쉬었음}}$$

7)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한시적 근로자, 혹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8) 소정근로시간이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인 자.
 9) 파견근로자나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10)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학업, 취업, 직업훈련은 물론 육아가사 등 생산적인 활동을 않고 있으며,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등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니트족(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않고 있는 청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정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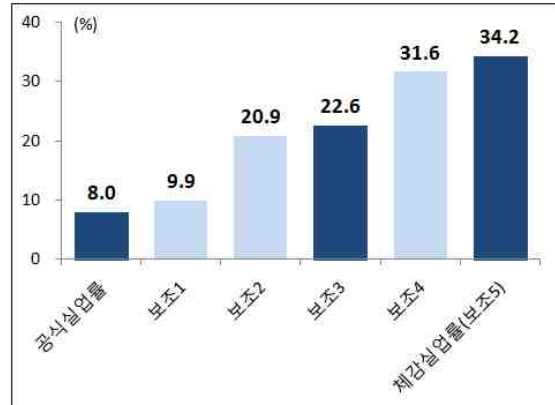
(2) 확장된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특징

- (전체)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2만명으로 고용보조지표3 인원(113.8만명)보다 65.5만명 더 많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로 고용보조지표3(22.6%)보다 11.6%p 더 높음
- 2015년 8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2만명. 고용보조지표3 인원 113.8만명(11), 비자발적 비정규직 45.8만명, 그냥 쉬었음 19.7만명임
- 2015년 8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로 공식실업률 8.0%, ‘고용보조지표3’ 22.6%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청년 체감실업자 >



< 청년 체감실업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고용보조지표4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5)은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정의.(이하 동일)

< 고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 현황 (2015년 8월) >

(단위 :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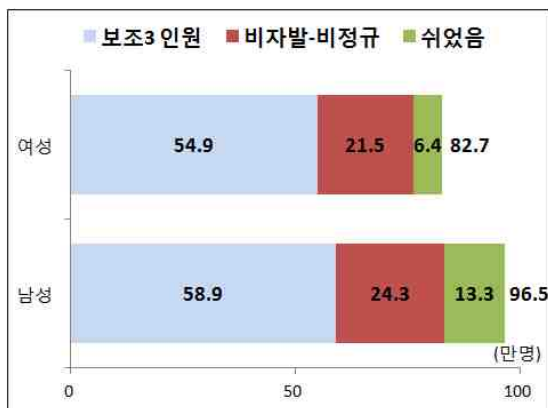
취업자 (a)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b)	비자발적 비정규직 (e)	실업자 (c)	비경제 활동인구	잠재경활 (d)	그냥 쉬었음 (f)	체감 실업자 (b+c+d+e+f)	체감실업률 (=보조5) $(\frac{b+c+d+e+f}{a+c+d+f})$
399.0	8.4	45.8	34.5	515.4	70.9	19.7	179.2	34.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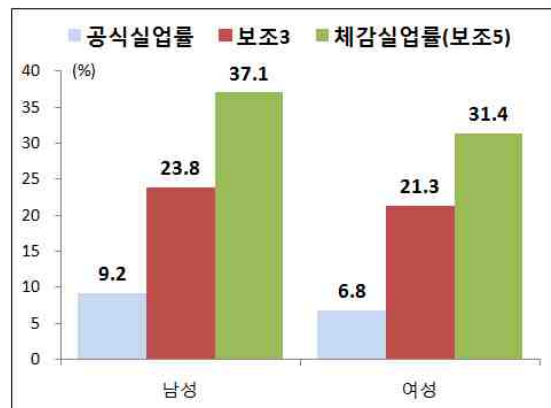
11) 공식실업자 34.5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8.4만명, 잠재경활 70.9만명임.

- (성별) 청년 중 남성은 여성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었음이 더 많으며, 체감실업률 격차는 5.7%p로 고용보조지표3 격차 2.5%p보다 더 큼
 - 2015년 8월 기준 청년 남성은 여성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었음이 더 많으며, 청년 체감실업자는 남녀 각각 96.5만명¹²⁾, 82.7만명¹³⁾임
 -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5)은 남녀 각각 37.1%, 31.4%로 5.7%p 차이이며, 이는 고용보조지표3 격차 2.5%p(남성 23.8%, 여성 21.8%)보다 큼
 - **특징1.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할 뿐만 아니라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더 많음**
 -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공식실업자)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 **특징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고려할 경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불완전고용은 남녀가 비슷한 수준**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남성(3.4만명)보다 여성(5.0만명)이 더 많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남성(24.3만명)이 여성(21.5만명)보다 더 많음. 둘을 합한 불완전고용은 남성(27.7만명)과 여성(26.5만명)이 비슷한 수준

< 성별 청년 체감실업자 >



< 성별 청년 고용보조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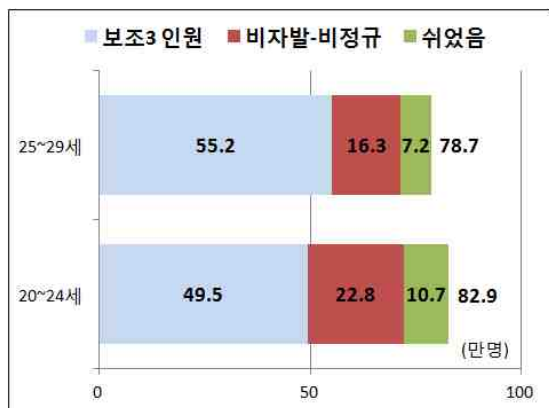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보조3 인원은 공식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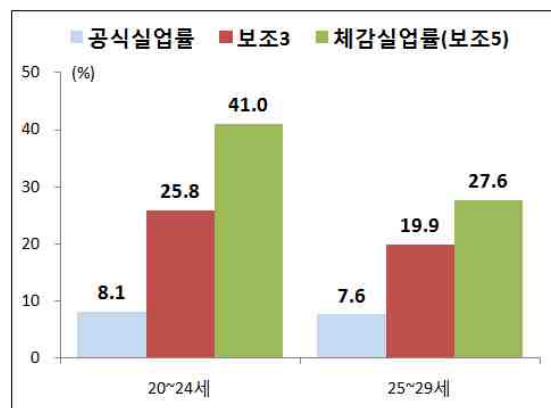
12) 고용보조지표3 인원 58.9만명(공식실업자 19.4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3.4만명, 잠재경황 36.2만명), 비자발적 비정규직 24.3만명, 그냥 쉬었음 13.3만명임.
 13) 고용보조지표3 인원 54.9만명(공식실업자 15.1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5.0만명, 잠재경황 34.7만명), 비자발적 비정규직 21.5만명, 그냥 쉬었음 6.4만명임.

- (연령별) 20~24세는 25~29세보다 잠재경황이 더 많으며, 체감실업률 격차는 13.4%p로 고용보조지표3 격차 5.9%p보다 크게 확대됨
 - 2015년 8월 기준 20~24세는 25~29세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는 경우가 더 많으며, 체감실업자는 각각 82.9만명¹⁴⁾, 78.7만명¹⁵⁾임
 - 체감실업률은 20~24세 41.0%, 25~29세 27.6%로 13.4%p 차이이며, 이는 고용보조지표3 격차 5.9%p(20~24세 25.8%, 25~29세 19.9%)보다 매우 큼
 - 특징1. 20~24세는 25~29세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업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쉬고 있는 경우도 더 많음
 - 20~24세는 25~29세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취업에 대한 상이 정립되지 않아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 특징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고려할 경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불완전고용은 20~24세가 25~29세보다 더 많음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20~24세(3.0만명)보다 25~29세(4.1만명)가 더 많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20~24세(22.8만명)가 25~29세(16.3만명)보다 더 많음. 둘을 합한 불완전고용은 20~24세(25.8만명)가 25~29세(20.4만명)보다 더 많음

< 연령별 청년 체감실업자 >



< 연령별 청년 고용보조지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보조3 인원은 공식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황을 의미.

14) 고용보조지표3 인원 49.5만명(공식실업자 12.8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3.0만명, 잠재경황 33.6만명), 비자발적 비정규직 22.8만명, 그냥 쉬었음 10.7만명임.
 15) 고용보조지표3 인원 55.2만명(공식실업자 18.6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4.1만명, 잠재경황 32.5만명), 비자발적 비정규직 16.3만명, 그냥 쉬었음 7.2만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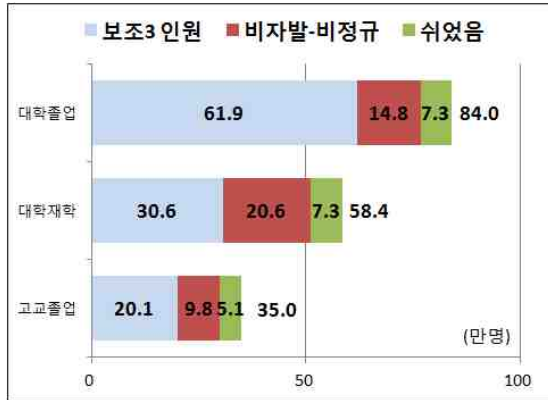
- (학력별) 청년 중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보다 잠재경황이 더 많으며, 체감실업률 격차는 21.6%p로 고용보조지표3 격차 6.7%p보다 크게 확대됨
 - 2015년 8월 기준 청년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는 경우가 더 많으며, 체감실업자는 각각 58.4만명¹⁶⁾, 84.0만명¹⁷⁾임
 -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고교졸업생)은 체감실업자가 35.0만명임¹⁸⁾
 - 청년 체감실업률은 대학재학생 49.1%, 대학졸업생 27.5%로 21.6%p 차이이며, 이는 고용보조지표3 격차 6.7%p(대학재학생 27.4%, 대학졸업생 20.7%)보다 매우 큼
 -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고교졸업생)은 체감실업률이 36.8%로 높은 수준
 - **특징1.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고 그냥 쉬고 있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음**
 -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황)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취업에 대한 상이 정립되지 않아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 **특징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고려할 경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불완전고용은 대학재학생이 대학졸업생보다 더 많음**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대학재학생(2.6만명)보다 대학졸업생(4.5만명)이 더 많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대학재학생(20.6만명)가 대학졸업생(14.8만명)보다 더 많음. 둘을 합한 불완전고용은 대학재학생(23.2만명)이 대학졸업생(19.3만명)보다 더 많음

16) 고용보조지표3 인원 30.6만명(공식실업자 6.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2.6만명, 잠재경황 21.1만명), 비자발적 비정규직 20.6만명, 그냥 쉬었음 7.3만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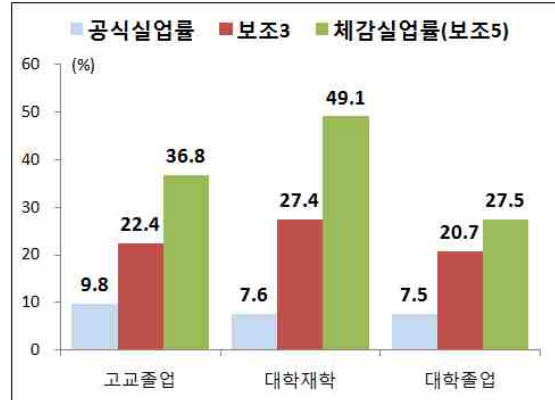
17) 고용보조지표3 인원 61.9만명(공식실업자 19.7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4.5만명, 잠재경황 37.8만명), 비자발적 비정규직 14.8만명, 그냥 쉬었음 7.3만명임.

18) 고용보조지표3 인원 20.1만명(공식실업자 7.7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1.1만명, 잠재경황 11.3만명), 비자발적 비정규직 9.8만명, 그냥 쉬었음 5.1만명임.

< 학력별 청년 체감실업자 >



< 학력별 청년 고용보조지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보조3 인원은 공식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향을 의미.

- (요약) 15~29세 청년 중 체감실업자는 179.2만명, 체감실업률은 34.2%에 달하고, 특히 남성(37.1%)과 20~24세(41.0%), 대학재학생(49.1%) 청년이 높게 나타남

< 확장된 고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 현황 (2015년 8월 기준) >

(단위 : 만 명, %)

구분	공식 실업자 (a)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b)	잠재 경향 (c)	비자발적 비정규직 (d)	그냥 쉬었음 (e)	고용보 조지표 3 인원 (a~c)	체감 실업자 (a~e)	공식 실업률	고용 보조 지표 3	체감 실업률 (보조5)
청년 전체	34.5	8.4	70.9	45.8	19.7	113.8	179.2	8.0	22.6	34.2
남성	19.4	3.4	36.2	24.3	13.3	58.9	96.5	9.2	23.8	37.1
여성	15.1	5.0	34.7	21.5	6.4	54.9	82.7	6.8	21.3	31.4
20~24세	12.8	3.0	33.6	22.8	10.7	49.5	82.9	8.1	25.8	41.0
25~29세	18.6	4.1	32.5	16.3	7.2	55.2	78.7	7.6	19.9	27.6
고교졸업생	7.7	1.1	11.3	9.8	5.1	20.1	35.0	9.8	22.4	36.8
대학재학생	6.9	2.6	21.1	20.6	7.3	30.6	58.4	7.6	27.4	49.1
대학졸업생	19.7	4.5	37.8	14.8	7.3	61.9	84.0	7.5	20.7	27.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를 활용하여 산출.

4. 시사점

- 공식실업자 및 잠재경황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임
 -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며, 특히 문화, 관광, 의료,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
 - 이공계 청년을 채용해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
 -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당장 경제성장률(연구개발투자)을 높이는 단기처방이기도 하며,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제품·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성장잠재력 강화에도 기여
 - 이를 위해 지금처럼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소액으로 쪼개 나눠주는 식의 중소기업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 소방, 경찰, 안전, 포괄간호서비스, 공공 보육·유치원교사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모색
 -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토록 독려
 -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처 사다리 강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현될 있도록 창업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 기술 및 아이디어에 기초한 창업기업이 생존·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 생계형 창업보다는 지식·기술 기반의 혁신형·고부가가치형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더 좋은 일자리로의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면서 '비자발적' 청년 근로자 급증
 - 임금, 공적 연금·보험, 교육훈련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청년도 급증하는 추세¹⁹⁾

- 또한 비정규직 같은 하위 일자리에선 아무리 경력과 경험을 쌓더라도 정규직 같은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이 다수
-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를 위해 청년고용정책의 중심축을 ‘진입 촉진’에서 ‘이동성 촉진’으로 전환
 -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일자리 연계, 일자리 박람회, 청년인턴 등 취업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자리 이동성 촉진 대책은 미흡
 -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경력 형성 및 일자리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재점검
-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확충
-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 영국 등을 벤치마크 하여 그냥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구체적 정책 마련
 - 정규 교육과정에서 직업체험 과정을 확대하여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산업과 연계하여 ‘학생→니트족’이 아니라 ‘학생→취업자’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청년고용정책 수립에 기여
- 청년고용의 특성상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체감실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 개선책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주로 분석
 - 무급가족종사자 청년 상당수도 취업준비를 하면서 부모님을 잠시 돕는 사실상 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육아·가사를 주로 하는 청년 중에서도 사실상 실업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함
 - 이를 추계하고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활동 인구조사 질문지를 강화할 필요

이 준 협 연구 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19)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6-16(통권 689호) “청년 열정페이 특징과 시사점” 참조.